

효봉 스님 43주기 송광사에서 추모제 봉행



효봉 스님 제43주기 추모제 모습.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했던 효봉 스님 43주기 추모제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다.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10월 19일 송광사 효봉영각 앞에서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 원 원명 스님, 회주 범홍 스님, 도성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제를 봉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날마다웃는집 출간 법륜 스님 강연회

‘죽문죽설(卮言卮說)’의 법륜 스님 강연이 광주에서 열렸다.

10월 17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날마다 웃는 집’의 출간을 기념하는 강연회가 열렸다.

지역불자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날마다 웃는 집’ 캠페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마음가짐에 대한 법륜 스님의 열정적인 강의, 현장에서 직접 질문한 죽문죽설 등으로 3시간 여에 걸쳐 이어졌다.

법륜 스님은 강연에서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고서 이제와 남편, 아내 땀에 괴롭고, 자식 땀에 괴롭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그 동안 열렸던 공개강좌의 벽을 넘어 좀 더 가까이 사람들과 호흡하고자 마련됐다. 11회에 걸쳐 경주, 포항, 부산, 대전 등 전국 대도시에서 11월 6일까지 열린다. (02)587-8994.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사 넘쳐 이번 주 부루나존자는 합니다

“믿음·깨달음 시작하는 장소돼야”

15일, 영암불교대학 개원식 갖고 내년 3월 개강 준비

기(氣)의 고장을 널리 알리려던 전남 영암에 첫 불교대학이 개원돼 지역포교의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영암불교대학(학장 월우·도갑사 주지)은 10월 15일 영암불교회관에서 개원식을 갖고 2010년 3월 불교대학 개강을 준비하는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영암불교회관에서 진행된 개원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김일태 영암군수 등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보선 스님은 법문에서 “믿음과 수행은 늘 같이 해야한다”며 “부처님 법은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라는 말씀처럼 와서 배우고, 깨달아야 그곳이 극락세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이곳 불교대학은 믿음과 깨달음을 시작하는 장소가 돼야한다. 배우는 자는 하



10월 15일 영암불교회관에서 열린 영암불교대학 개원식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루에 한번 자기 마음을 살펴, 그 마음이 부처님임을 깨달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법문에 앞서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에서의 불교교육

은 자유와 신행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신행인 양성을 위해 끊임 없이 정진해야 한다”며 “영암불교대학은 부처님 참법에 맞는 바른 정진과 공부를 하고, 사회봉사

에 앞장서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스님은 “사회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지역민에게 비춰졌을 때 불교대학의 이미지는 새롭게 탄생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원한 영암불교대학은 영암지역민을 대상으로 불교기초교리 과정생 모집을 통해 2010년 3월 2일 입학식을 갖고 개강한다. 교수진으로는 중앙승가대 종석 스님을 비롯해 월우·법인·보각 스님, 김응철·최종남·김상명 중앙승가대 교수와 보선·암도·종범·법각 스님 등이 특별강사로 참여한다. 특별행사로 성지순례, 철야정진, 도갑사 법회참석 등도 진행된다. (061)473-512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승려노후수행관 설계공모전

선운사, 11월 15일까지 응모 상금 천만원



고창 선운사 전경.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노스님들을 위해 교계 최초로 조성되는 승려노후수행관은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 일대 2만㎡(6000천평) 대지에 세워진다. 건물은 자연친화형 전통한옥 형태로 가구당 1~2인이 거주하는 10~20개동 및 6~7인 거주 다가구형 공동시설을 갖춘 노스님들의 주거와 수행, 간병을 고려한 공동체 거주지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모전 응시자격은 대학(원)생, 해당분야 대학교(원) 부설연구소 또는 유사연구기관,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 자연친화형 한옥 건물과 승려노후수행관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과 우수상에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상금이 주어지며, 입상자에게는 설계 참여

권이 부여된다.

11월 15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현장설명회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석상마을에서 열린다. 작품 접수는 2010년 1월 30일까지, 입상자 발표는 2월 10일 불교신문 및 선운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공모전의 시상은 대상에 상장과 상패 상금 700만원, 우수상은 상장과 상패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며, 입상자에게는 향후 ‘선운사 노후수행관’ 현상설계 참여권을 부여한다. (063)561-1422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 포교사단장 정영균씨

전북포교사단장 김진수 현 단장 재임



정영균 광주전남포교사단장.

광주전남 포교사단은 10월 16일 광주불교회관에서 운영위원회 열고 제6대 단장으로 정영균 포교사를 선출했다.

정영균 포교사단장 당선자는 제7기 포교사교시 출신이다. 교장 정년으로 퇴임 후 목포지역 군부대 포교팀을 창단을 시작으로 목포불교대학 사무국장, 목포교도소 재소자 불자법회를 이끌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단에서 부단장과 교육위원, 군포교팀장,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영균 포교사는 당선소감을 통해 “많은 포교사가 나오고 있으나, 실제 활동은 미미한 경우가 많다. 포교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포교의 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17일 전북포교사단은 전북불교회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관에서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제6대 전북포교사단장에 김진수 단장을 재선출했다. 전체 23명 운영위원 중 17명

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현 김진수 단장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 단장은 익산 관음사 신도회장과 가톨릭가 합창단장, 이라불교대학 부학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군포교, 교도소 포교분야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2년간 전북포교사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제6대 전북포교사단장의 임기는 2010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성조사 ‘귀원정종’ 새롭게 조명 12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및 다례제 봉행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인 백용성 조사(1864~1940)의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에서 ‘백용성 조사 오도 12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다례제가 봉행됐다.



10월 17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행된 백용성 조사 오도 제123주년 기념 다례제 모습.

10월 16~17일 열린 행사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용성사상과 계승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용성 스님의 저술인 <귀원정종>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김광식 부천대 교수가 용성 스님을 시봉한 동헌 스님에 관한 연구논문 ‘동헌 스님의 삶과 용성 스님의 유문 실현’, 덕산 스님은 ‘승가의 정사(靜事)와 파승(破僧)에 관한 석존의 고계(敎誡)’를 발표했다.

용성 스님은 일제강점기 3·1 독립운동에 불교계 대표로 나선 것을 비롯해 불교 혁신과 정화운동 등에 앞장선 불교운동가다. 특히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와 선농불교를 주장한 선각자로 알려져 있다.

신 교수가 연구 발표할 <귀원정종>은 용성 스님이 1908년 지리산 칠불사 조실로 주석하며 저술한 첫 단

행본이다. 근대화의 격동기, 개신교와 신흥종교가 급성장하던 상황에서 불교와 이웃종교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담아 국내 비교종교학의 효시로도 불린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용성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신지 123년째를 맞이하는 용성조사 오도 123주년 봉행대제와 7여래불, 69조사와 7대사를 비롯한 제대 선지식 다례제와 온 겨레를 위한 1만등 불사 회향식이 봉행됐다.

법륜 스님은 법어에서 “용성 스님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각사상을 통한 민족의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민족의 지도자”라며 “용성 스님의 유지를 올바르게 이어받아 민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일청년회 창립 30주년 행사

17일, 원각사 기념법회 100여 회원·동문 참여

빛고을 광주에서 가장 깊은 역사를 가진 청년회가 창립 3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범정택)는 10월 17일 원각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및 원각의 밤 행사를 100여 회원과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행사에는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찰연합회 회장), 일귀 스님(송광사 강원 강주를 비롯해 정종정 대한불교청년회장, 김용욱 원각사 청년회 초대회장, 강운태 국회의원 등 역대 회장단과 동문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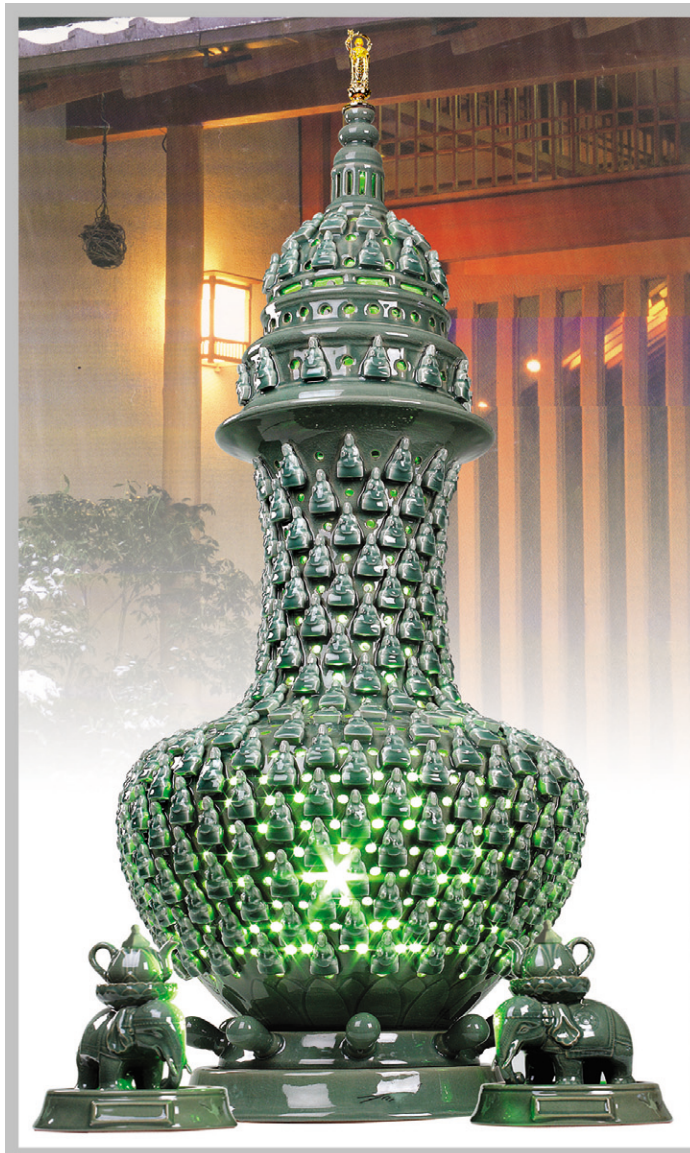
범정택 회장은 창립기념법회 인사말에서 “원각불청은 광주 청년 불교의 중심에서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언제나 앞장서 나아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우리 청년회는 시행착오와 더불어 대사회봉사활동을 통한 포교의 선봉에서 활동을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정종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불교를 중흥시켜 민주주의와 평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불교청년회가 큰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원각사 불일청년회가 가장 중심에서 서서 함께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한다”고 축사의 말을 전했다.

창립기념법회에 이어 진행된 원각의 밤 행사에는 원각사청년회가 지난 30년간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영상상영과, 원각사합창단의 축하, 풍물패 빛울림의 공연, 불자가수 주권기씨의 축하공연, 헌혈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생과 현생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탄생!!!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묶은 빛, 해탈이 복 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삼강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계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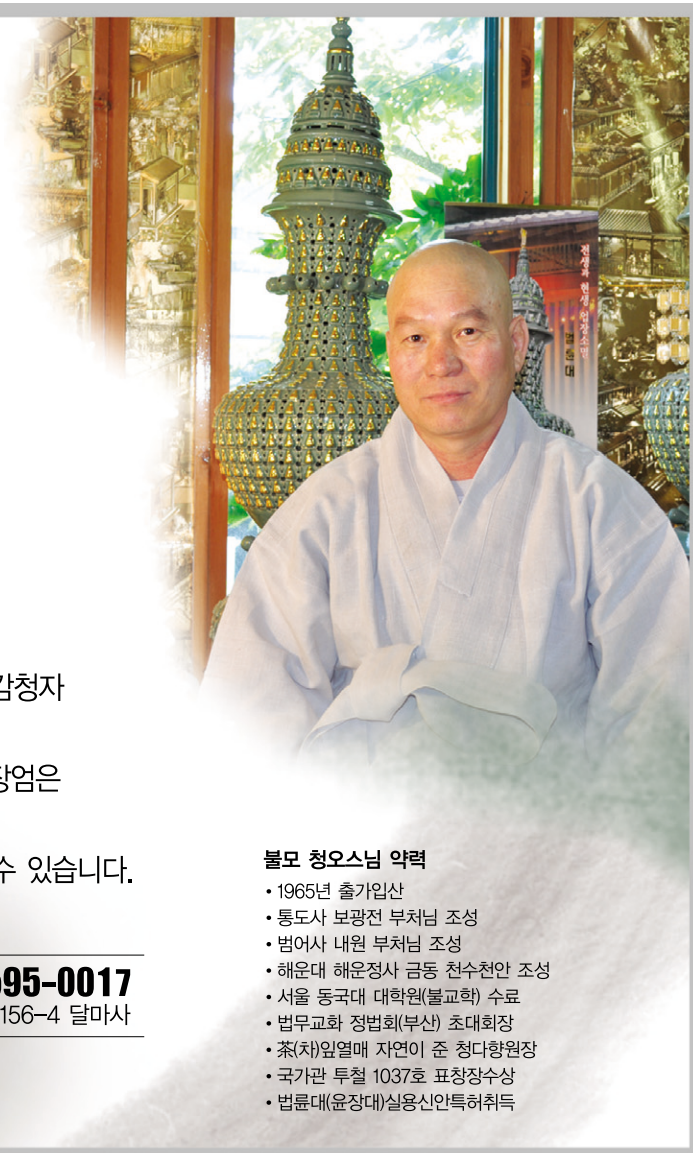


실용신안특허허가증

□재료명: 순금천불명반법륜대
□재 질: 대한민국 삼강청자
□높 이: 110cm □전폭폭: 45cm
□발행일: 30cm □무 게: 25kg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계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불모 청오스님 약력

- 1965년 출가입산
- 통도사 보광전 부처님 조성
- 법어사 내원 부처님 조성
- 해운대 해운정사 금동 천수천안 조성
- 서울 동국대 대학원(불교학) 수료
- 법무교회 정법회(부선) 초대회장
- (차)일월매 자연이 존 청다향원장
- 국가관 투철 1037호 표창장수상
- 법륜대(윤장대)실용신안특허허득